

고용위기 극복에 '한마음'

전북도 -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추진 가시화 노사민정 컨퍼런스 개최... 상생협약안 마련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9일 군산대학교 이노텍홀에서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지역상생형 일자리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투자계획과 상생형 일자리 추진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과 모델 확산을 위해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갑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등 군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발제는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 특보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사례를,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가 상생형 일자리 지역주체의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

하고, 이어서 상생형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노사민정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는 발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 기업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벗어나 지역과 노동조합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며, 지역 일자리 4가지 핵심요소로 '단체장 의지, 전담 부서 전문가 영입, 일터 혁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보기 보다는 기분을 다지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박유규 과장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최재춘 지부장, (주)코스텍 이성기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노사민정 모두가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토론과정에서 기존 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광주형보다 신속한 성과가 기대되며, 대기업 및 전라산업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GM 협력사(1, 2차)의 우수한 제조 시설을 활용한 대체(인중)부품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정부가 균등법 등 관련 법이 국회 통과 시 상생형 일자리 2~3곳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군산지역이 우선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맞는 상생형 약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 노·사·민·정 모두가 대타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의제별 토론회를 통해 7월 말까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확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시 바로 대응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혁신교육 위한 협업체제 구축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교육대학교와 협업체제를 구축한다. 19일 오전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3층에서 '참학력 교육과정 지원실' 개원식을 갖고 전북혁신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협업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내달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확대 시행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은 종이 고지서 없이 납세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스마트 위택스와 국민은행·농협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은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되며,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은 서비스 첫 시행인 7월에만 모바일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하여 발송된다.

납세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모바일 고지서로 송달되며, 이달 중에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재산세 정기분(건물, 주택) 고지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게 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면 납세자들이 고지서 분실이나 송달 지연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건당 150원~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도시에 비해 불리한 입지여건 및 영세성으로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원

을 확보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이를 위탁해 시행한다.

본 사업은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3주간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기업을 접수받고,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시제품 개발 지원, 시험분석 비용 지원, 국내·외 규제인증 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총 6개 사업 분야가 있으며 기업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5~6일 부안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9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사회 안전망 역할 '톡톡'

50대 초반의 여성인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되었고, 유체동산 압류집행(채권액 20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건강상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절망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의 소개로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는 금융감독원에 민원대행을 통해 채권

자의 압류집행을 취소시켰다. 또한 그동안 그녀를 윤택던 빚 4000만원에 대해서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지난달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희망을 갖고 사회적 재기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소된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센터는 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서민금융 관련 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개의 시·군에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전북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북지부, 산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전북센터,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재무상담(교육) 및 유관기관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창업출정의 힘찬 첫 발을 응원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호남권 예비창업가 졸업식 열려

미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제8기 호남권 예비창업가 72명이 졸업 후 창업출정의 첫 발을 내딛는다.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호남권(전북, 광주·전남, 제주) 졸업생을 대상으로 8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을 열었다.

행사는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호남지역 8기 졸업생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백종신 로우앤앤드메이드 대표(8기 가솔라)가 우수 졸업기업 스토리를 발표했다.

2011년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매출액 1조8000억원, 5600여명의 신규

일지리를 창출하였고 직방(1기), 토스(2기) 등 매머드급 창업자와 2300명의 청년CEO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중견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라는 미지의 길을 나서는 입교생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청년 창업문화와 혁신성장 든든한 뿌리와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도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 창업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연간 1억원 이내로 일괄지원한다.

현재 전국 17개소로 올해 2월 제9기 입교자를 모집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8년 10월 우석빌딩(4·5층)에 개소하였으며 올해 70명이 입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